

## 2022년 06월 19일 설교

**본 문 : 이사야 53:1~3, 요한복음 6:15**

**제 목 : 예수님의 권리포기**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도 누리기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 된 본체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 이상으로 위대한 권리포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권리포기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근본이며, 절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긴 생머리에 멋진 수염과 항상 빛이 나는 흰색 옷에 빼어난 외모, 키는 또 얼마나 큰지요?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53:2-3절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봐 왔던 그림하고는 완전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기름기 흐르고 귀티 난 모습일까요? 그런 뿌리는 메마르고 꼬여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기 힘든 외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손은 거칠었고,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피부는 검게 탔습니다. 옷도 밝게 빛나는 하얀 옷을 입으신 게 아니라 당시 가난한 백성들이 입는 아주 싸구려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로마병사들에게 넘기려고 할 때 군호를 찢던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 있으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평범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고, 수중에 돈도 없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주로 만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둘째,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은 동네사람들에게 폄하되어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논쟁하거나 서운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눅 17장에서 주님에게 고침 받은 10명의 나병환자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할 때도 나머지 9명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종교지도자들에게 매수 당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3년의 공생애 사역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 이상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 그리고 감사받을 권리조차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넷째,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8:50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욕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미리 본을 보이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본문 요6: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헤롯 대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최소한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여 군림하는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오직 천국복음의 전파와 12 제자를 오직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천국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권리 포기를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자기부인과 권리포기로 그리스도의 종 된 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06월 26일 설교

본 문 : 에베소서 2:14~18

제 목 :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우리가 사는 집에는 담이 있습니다. 담은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고전4: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에서 양이 울타리 안에서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서로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담과는 전혀 다른 담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간에 막힌 담**’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만들어진 이런 담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믿음이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이 차단되어 인생이 어둡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듭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선생과 제자 사이, 교우와 교우 사이에도 이런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잘못된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런 잘못된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주님께서 육체로 벽을 허무셨다는 것은 보이는 벽과 보이지 않는 벽 두 가지 모두를 허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주님은 **보이는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둘러 쌓여 있는 1.5m의 높이로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 이방인의 출입을 막은 담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은 혈통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인 벽은 보이는 벽보다 오히려 더 무너뜨리기 어려운 벽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정결법과 할례, 음식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이기적이고 오만한 유대인의 법을 단번에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2: 12~14절에서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인간이 서로 화평한 삶을 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높은 자나 낮은 자, 남자나 여자, 부자나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하나 되어 화평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돈 리차드슨이 기록한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뉴기니섬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는데, 그곳에 사는 사위부족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배반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는 전통문화가 있었던 그 부족은 가룟 유다가 가장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도저히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리차드슨은 선교지를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화해의 아이**’라는 풍속을 발견하고 화해의 아이를 이용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9:6절에 나오는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부족이 복음화 되었고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해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용광로와 같아서, 주 안에서 고백한 인간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분열과 분쟁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한국 교회에 회복과 화해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쌓인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022년 07월 03일 《맥추감사주일》 설교

**본 문 : 역대상 16:7~9**

**제 목 :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2022년 상반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뭐니까? 글로 적어놓거나 다른 사람이 늘 말해주면 좋겠다는 표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통일왕국을 이룬 후 다윗은 잘 준비하여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안정되고 다윗의 왕권도 확고해 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세워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 찬양이 본문 8절부터 나오는데 가사가 참 특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찬양의 첫 가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여러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의 시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에게 찬양을 많이 시켰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한 장 전체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사역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대에게 감사하라는 가사의 찬양을 많이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찬양대의 이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도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늘 되새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본문을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사람이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니까? 그때의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한 어려움에서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글로 써놓고 되새기며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2022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선포의 찬양을 자주 들으시고 또 서로 말해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2022년 07월 10일 설교

본 문 : 창세기 12:1~9

제 목 :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미래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난 비전을 가진다면 그것은 참된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비전으로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올바른 소망과 비전을 따라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파멸당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창11:4)**.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확고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흠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방법과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잘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협력을 무너뜨리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들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과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 언어가 소통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자기들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바벨탑 사람들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9:1)** 라는 비전을 받았습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었던 초대교회도 말씀을 비전으로 삼지 않았습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라는 비전을 초대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교회는 세계를 선교하려는 비전을 가지지 않았습니. 결국 예루살렘교회는 박해를 받아 흩어지고 나중에는 세계교회의 중심이 안디옥과 로마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이나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비전으로 삼지 못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비전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시야, 시각, 시력**으로 보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삶을 모두 벗어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고 과거의 관습을 벗어나려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비전을 바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서 복을 받도록 만드는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참된 믿음과 바른 삶**을 세워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은 세상의 빛이 되는 복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절망과 탄식이 있는 곳이 구원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 2022년 07월 17일 설교

**본 문 : 누가복음 19:41~48**

**제 목 : 예수님의 통곡**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기초눈물, 반사성 눈물, 감정의 눈물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며’**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울고 계신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민족과 성전과 연약한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42-44절까지 주님이 울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민족을 위하여 우셨습니다(42-43절).** 예수님은 평화에 관한 일을 유대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과 눈에 숨겨져 그 평화를 주러 오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 메시아를 모른 상태로 예루살렘이 장차 원수들에게 짓밟힐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통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시며 말씀하신 예언은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티투스장군이 10개 군단 97,000명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 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운명 앞에서 주님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44절 상반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라는 말씀만 보더라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 와서 어린 자녀들을 땅에 매치고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자녀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녀들이 전쟁과 기근의 공포로 고통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무분별한 세속문화와 부모의 불화와 이혼 등으로 깨진 가정에서 방치된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울어야 할 문제는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는 자녀들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미성숙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중보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전을 위하여 우셨습니다(44절 하반절).** **“둘 하나도 둘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말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꾸미고 있던 모든 장식의 금과 은을 다 떼어내서 가루로 만들어 로마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가루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성전파괴를 아시고 괴로워하신 통곡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의 중심이자 그들의 신앙의 기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막상 들어가보니 완전 엉망진창인 것을 보시고 뒤엎어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의 책임이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교지도자들의 타락이 예수님의 성전청소의 원인이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며 분통이 터진 것입니다.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성전이 도리어 세상을 타락하도록 유도하는 곳으로 전락했으니 예수님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당시 타락했던 성전의 모습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채우는 집입니다.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통곡은 바로 민족과 자녀들과 성전을 위한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눈물을 본받아 나라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 2022년 07월 24일 설교

본 문 : 마태복음 7:1~5

제 목 : 예수님의 웃음

그동안 우리가 보아 온 예수님의 초상은 온화하지만 무표정합니다. 주로 십자가 수난과 죽음에 우리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초상이 우리의 기억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본 예수님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물고기를 잡아 함께 구워 먹으며, 혼인잔치와 여러 사람의 식사 초대를 받아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있었던 수 많은 사건들 가운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외에 그분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미소를 지으며 유쾌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 기적, 특히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실 때는 더욱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주님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 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능력 체험했던 것을 보고할 때 함께 기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도 인간에게 부족한 것을 채운 기쁨이나 성취감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성령으로부터 생기는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세 번 나오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기간 동안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삶의 여정 대부분이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우며 자유로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웃음과 유머 속에서 세 가지의 장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웃음과 유머는 전달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웃음과 유머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웃음과 유머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처럼 살지 않으면 심판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짓눌러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말씀하시고, 주님께 나아온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면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도전과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모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정적 문제, 취업의 문제, 배우자를 찾는 일, 소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이루 셀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님의 유머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서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로 웃음이 넘쳐야 합니다. 올 해 우리교회 표어가 '기쁘고 재밌고 신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무더운 여름, 밖에 조금만 돌아다녀도 힘들고 짜증나고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주님의 유머와 웃음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웃으면 이웃에게도 그 웃음이 전염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건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건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유머와 기쁨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더라도 슬픈 현실을 웃음과 유머로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신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처럼 웃음과 유머가 넘치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2022년 07월 31일 설교

본 문 : 시편 51:10~19

제 목 :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바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최고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존심과 권위를 버리고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망했던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각 왕과 살진 짐승들을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 꾸짖으십니다. 이에 사울은 회개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인정을 받기 위한 변명에 가까운 회개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회개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꾸중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10-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지 않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간구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회개에서 모범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악한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 주님의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칩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말씀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자원하여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참 제사의 회복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찢기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늘 죄를 짓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별을 두려운 것도 정상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럴 때 죄에 억눌려 좌절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악에 대한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세상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새 힘이 넘쳐 주의 도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로 바로 서는 충복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08월 07일 설교

본 문 : 창세기 39:1~10

제 목 :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

선교학자들은 20세기를 가리켜 '텐트메이커(Tentmaker) 시대'가 열린 세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위대한 평신도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전도종족국가의 80-90% 이상의 지역에서 목사나 선교사 타이틀을 가진 종교인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문 직업인들에게는 제한 없이 문을 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는 것이 선교전략상 중요한 시대라는 의미에서 '위대한 평신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평신도란 본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면서 성직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성직자란,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곳이 사역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사역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며 비단 타문화권 선교사만 선교사라는 개념을 넘어 모두가 이 시대의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로 한순간에 노예가 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직장인 요셉**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요셉을 위하여'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그의 직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으면서 정직과 성실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은 모든 일을 요셉에게 '위탁'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78편 72절에서 우리가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완전함'이 '성실성'을, '능숙함'이 '전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직장 and 삶의 현장에서 이 두 가지의 자세로 임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태도는 **'일관성 있는 삶'**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모함을 받아 궁중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일관성있는 태도로 모든 일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의 모든 제반 일을 맡아 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일을 보며 그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네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셋째, 범죄를 저지러 수 있는 통로, 즉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넷째, 범죄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술맡은 관원장과 떡맡은 관원장을 만나 꿈 해석을 도울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틀 목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결정적인 때에 침묵하고 있는 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하는 순간에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공간, 어떤 순간에도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평신도 선교사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모든 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관성있는 삶의 태도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보고 비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